

CTS 아메리카 개국 17주년 “복음 전파의 지경 더욱 확대 할 것!”

CTS 아메리카(대표 백승국 목사)는 지난 28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개국 17주년 기념 및 공중과 송출 감사예배를 드리고 미 전역과 전세계에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CTS 기독교 TV는 지난 1일부터 남가주에서 디지털 공중파(DTV) 채널 18.8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동시에 CTS America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라이브(cts America), Smart tv (Apple TV, ROKU, fire TV, android TV)를 통해서도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다.

백승국 대표는 “미주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남가주 지역 성도들에게 유익한 영적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신앙생활의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은 물론, 이민사회와 빠르게 소통하며 한인 이민자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매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백 대표는 “CTS의 남가주 지역 공중과 송출은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공중과 송출은 오랜 기대에 대한 부응의 결과”라며 “공중과 송출을 통해 미주



CTS 아메리카 개국 17주년 기념 및 공중과 ch18.8 송출감사예배 기념 촬영 ©기독교일보

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 방송사로 우뚝 설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에는 CTS 기독교TV 회장 감경철 장로를 비롯해 이철 감독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서울남연회, 광림교회), 하근수 감독(경기연회, 동탄시온교회)이 본국에서 참석해 CTS아메리카의 개국 17주년을 축하했다.

CTS 기독교TV 회장 감경철 장로

는 “CTS는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기독교 방송 사역 발전과 복음전파의 지경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CTS는 더욱 주의 복음을 전세계에 실어 나르는 기독교 방송 선교를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1부 감사예배와 2부 축하행사로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는 이동진 목사(성화장로교회, CTS 아메리카 사목)의 사회로 김우

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한기홍 목사가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딤후4: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1부 예배는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감사예배에서 설교한 한기홍 목사는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방송 사역일 것”이라며 “주어진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사

역을 감당했던 바울과 같이 CTS를 통해 미주를 넘어 전세계와 선교지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재근 목사(씨미밸리침례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축하행사는 갓스 이미지의 축하 공연에 이어 이철 감독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문성 선교사(파푸아뉴기니)가 격려사를 전했다.

또 김정석 감독(서울남연회, 광림교회), 하근수 감독(경기연회, 동탄시온교회)가 축사했으며, 박경재 주 LA총영사, 영 김 연방하원의원, 미셸 박 연방하원의원,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 CTS 내가메일기쁜게 사회자 최진규, 김지선 씨가 영사로 축사를 보냈다. 2부 축하행사는 송병주 목사(선한침지교회)의 기도로 마쳤다.

CTS 아메리카는 이날 갓스 이미지(God's Image)와 오버플로우 미니스트리(Overflow Ministry), 박수영 변호사, 뮤지컬 배우 최원현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동욱 기자

저스틴 비버 LA 워십 콘서트 개최, CCM 가수들 극찬

지난주 LA에서 열린 저스틴 비버의 ‘프리덤 익스피리언스’(Freedom Experience) 콘서트가 카리 조브(Kari Jobe)와 같은 CCM 가수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LA 잉글우드 의 소피 스타디움(SoFi Stadium)에서 열린 ‘원데이LA’(1dayLA) 자선 행사에는 서던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온 약 2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미화사업, 학교로 돌아가기, 무료 의료원, 노숙자

지원, 구호물자 제공 등으로 희망과 도움을 주기 위해 열렸다.

비버는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는 오랜 신념을 갖고 이번 원데이LA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의 날 이후, 참석자들은 E!뉴스(E! News)의 제이슨 케네디가 사회를 맡고 저스틴 비버가 인도한 워십 콘서트에 초대됐다.

이 자리에는 비버 외에도 마버릭 시티의 캔들러 무어, 카리 조브, 캔스 더 래퍼, 토리 켈리, 제이든 스미

스 등 유명 CCM 아티스트들도 함께했다.

각 아티스트들은 다른 이들의 무대가 진행될 때 함께 서 있다가 일부 곡들은 함께 부르기도 했다. 비버는 카리 조브 및 그녀의 남편인 코디 카니스와 함께 그들의 곡인 ‘더 블레싱’(The Blessing)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카리 조브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스틴 비버의 팬들을 향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는 “우리가 이번 콘서트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원데이LA 행사에서 워십 콘서트를 인도한 저스틴 비버. ©유튜브 영상 캡처

전했다. 켈리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프리덤 익스피리언스는 정말 큰 사랑으로 가득한, 믿을 수 없는 밤이었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처치홈(ChurchHome) 교회를 이끌고 있는 비버의 멘토, 유다 스미스 목사가 워십 콘서트 중간에 말씀을 전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2021년 가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릭스 교수, Ph.D.
(플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스라야도요 교수, D.Miss
(플러신학교) 타문화사역

데이빗 맥켄지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김민태 교수, Ph.D.
(플러신학교) 선교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유학생 1-20 발급**

■ 모집 학위과정
MATS 신학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장학금
가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1년 7월 19일(월) ~ 8월 12일(목)
합격자 발표	2021년 8월 19일(목)

■ 가을학기 일정(5주)
9월 7일(화) ~ 11월 12일(금)

■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714)718-5239, (213)531-7215 /admin.kor@itsla.edu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714) 718-5239, (213) 531-7215
admin.kor@itsla.edu

월드미션대학교 2021 가을학기 입학설명회 개최



월드미션대학교 전경

오는 8월 6일(금) 오후 3시(서부시간)
입학설명회 참석시 입학금 면제 혜택
미국 대학 정규학위 취득 및 다양한 장학금 제도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가 오는 8월 6일(금) 오후 3시(미 서부시간) 2021년 가을 학기 신입생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입학설명회는 월드미션대학교 입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으며, 입학설명회 참석자는 입학금 면제 혜택이 있다. 입학설명회에서는 학과별 지도교수의 개별 상담과 FAFSA(연방학

자금보조) 및 다양한 장학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주 한인 신학교로는 최초의 ATS(기독교신학대학원협의회)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월드미션대학교는 신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음악학, 예배학, 글로벌 리더십의 학위 과정이 개설 돼 있다. 또 양질의 온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미국 대학의 정규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1-20 발급과 유학생 장학금

을 비롯해 목회자/선교사 장학금과 정부 그랜트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독교 종합대학인 월드미션대학교는 설립자 임동선 목사의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라는 목표와 신념 아래 1989년 설립됐으며, 기독교대학연합회(ABHE),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정회원 신학대학으로 1천 여 명의 졸업생이 전세계에서 목회자, 선교사, 교회음악사역자, 목회 상담가, 평신도 지도자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입학 설명회 관련 문의는 213-385-2322, wmuinfo@wmu.edu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미주복음방송 창사 30주년 기념, '최고 경영의 신' 세미나 개최

연택트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하나님의 비전과 경영 원리 소개

GOD THE CEO 최고 경영의 신 세미나

강사: 살롬 김 박사 |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 CEO

본문: 스토리 언택트, AI, 4차 산업혁명시대, 뉴 패러다임으로 개념 재인식을 하십시오!

세 시대를 주도할 성경적 창조의 진심, 창조 경영 원리 세미나에 목회자와 평신도 경영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1등은 현대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박사가 말하는 5MBO보다 더 종합적인 경영 원리를 통하여 창조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됩니다.

당신이 1등, 더 이상 믿음으로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경영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원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일시 8월 7일(토) : 오전 10시-12시 평신도 경영자
8월 9일(월) : 오전 10시-12시 지역자/신학생 (각일 선착순 등록자 25명에게 선착순 무료 제공)

장소 미주복음방송

등록 714-484-1190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경영의 비밀을 명확하게 드러내 준 '최고 경영의 신'이라는 신의 선물들이 극찬한 책

8월 7일, 9일(월) 오전 10시, 애나하임 공개홀

스트인 살롬 김 박사가 자신의 최근 저서 "GOD THE CEO 최고 경영의 신"을 소개하면서 GOD THE CEO 최고 경영의 신의 성경적 근거, 현대적 적용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언택트 시대 AI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설명하고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를 소개할 예정이다.

살롬 김 박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경영을 명쾌하게 알려주고, 그 원리를 따라 경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따라 우리의 삶과 사업장을 경영할 때 모든 일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풀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8월 7일(토)은 평신도 경영자, 8월 9일(월)은 사역자를 대상으로 오전 10시-12시에 진행되며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는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참가자들에게 무료 선착순을 제공할 예정이고,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양일 25명씩 선착순 등록을 받는다.

참석은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GMU "사립 학교 교사 자격증 필수"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무료 강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는 ACSI 사립 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시 필수 과목인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교육에서의 기독교 철학) 무료 강의를 8월 12일(목) 오후 4시 30분 미라클 센터 304호 강의실에 개최한다.

무료 강의를 준비하는 GMU 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수는 "GMU는 사립학교 교사 자격증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ACSI(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로 부터 HEAP(The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Program)에 가입하게 되고, 교사 자격에 관심이 많고 필수 과목인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교육에서의 기독교 철학)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무료 강의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ACSI 사립학교 교사는 현재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100여 개국에 전세계적으로 2만4천여 학교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 무료 강의의 참가 인원은 30명으로 강의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는 현재 미 연방 교육국 USDE가 인정 학위 인가기관인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로서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과 연방정부 학비보조인 PELL GRANT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CAL GRANT를 제공하고 있다.

GMU 학사학위 과정은 신학학과와 기독교 상담학 학사 과정이 있으며 석사학위 과정으로 기독교 교육학석사, 선교학석사, 기독교상담학 석사과정과 목회학 석사과정이 있으며 박사과정으로 선교학 박사과정과 교차문화학 철학박사과정이 있으며, 유학생 I-20 비자, 연방정부 및 주정부 무상학비보조(Pell, Cal Grant), 100% 통신교육, 영어트레이킹이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있다.

※ 학교 및 입학 관련 문의 714-525-0088 (Ext 101)

AM1190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오는 8월 7일(토)과 8월 9일(월)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최고 경영의 신'(GOD THE CEO) 세미나를 미주 애나

하임 복음방송 공개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의 CEO이며 미주복음방송의 칼럼리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가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글루코산 아연 그룹
- 홍화씨유
- 달맞이꽃 증가추출물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당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을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인슐린 분비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당뇨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도 인슐린 주사, 인슐린 펌프, 인슐린 펌프, 인슐린 펌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결과를 연구결과를 드러냈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관계 있어, 사슴에 주목하여, 아연에 O-P을 첨가한 신형 물질(O-P Plus Zinc) 프로지골드(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제제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세포의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회복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 분비 부족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DiEnzyme(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은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형 물질(O-P Plus Zinc) 프로지골드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은 인슐린이 인슐린의 인슐린 활성을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형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O-P)을 아연에 결합시켜 시린으로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뇨 대상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살의 질을 높일 필요하신다면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한 분
- 요과적인 혈당 강하를 원하는 분
- 지속적인 혈당 관리를 원하는 분
- 식후 혈당이 높으신 분
- 건강이 염려 되시는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 하신 분

섭취방법

섭취시 1일 2회, 1회 1캡슐을 아침식사 30분 전과 잠자기 1시간 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 주세요.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 1명 구입시 \$79 +Tax
- 3명 구입시 \$225 +Tax
- 6명 구입시 \$432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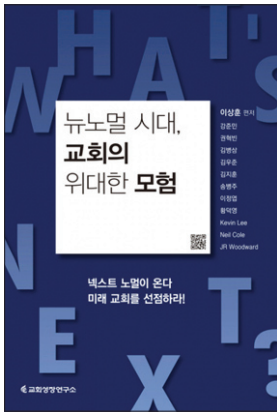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계성과 건강성 회복에 집중해야”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김병삼 목사·이상훈 교수 (上)

“딩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통해 의식을 집례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지만, 교회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존재론적 본질과 핵심을 자각하게 되었다.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중심축이 바뀌며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보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이 숙명처럼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가 온라인 중심의 ‘뉴 노멀’ 시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교회도 팬데믹 초기 ‘온라인 예배’ 논쟁과 이따금 확진자 발생으로 흥역을 겪었지만, 점차 온라인을 하나의 사역 통로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온라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창의적인 사역을 모색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은 미주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적 교회’ 지향 교회들의 연합체인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소속 목회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격주로 모임과 세미나를 열면서 새로운 시대 상황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사명을 쫓아가는 새로운 모험을 하며 이웃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여정의 기록이다.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이상훈 외 | 교회성장연구소 | 360쪽

미성대(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총장으로 <리폼처치>, <리뉴처치>, <리싱크처치>를 썼던 이상훈 교수를 중심으로 강준민 목사(LA 새생명비전교회),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김우준 목사(토렌스 조은교회), 김지훈 목사(LA 동양선교회), 송병주 목사(선한영지기교회), 이정엽 목사(LA 온누리교회) 등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케빈 리 목사(새들백교회 온라인 담당), <교회 3.0>, <오가닉 처치> 등을 쓴 닐 콜(Neil Cole) 대표, Mission Alliance 설립자 JR 우드워드(JR Woodward) 등 미국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김병삼 목사(만나교회)와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의 글을 모았다.

책에서는 각 목회자들이 예배와 설교, 양육과 제자훈련, 소그룹과 목회상담, 전도와 지역사회 선교, 다음 세대와 온라인 사역, 리더십과 미래 전략 등 팬데믹 시대 각 분야의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출간 동기가 궁금합니다.

이상훈 교수: 팬데믹 발생 후 미주 한인 목회자들과 팬데믹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지 가볍게 논의하는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팬데믹이 가져올 미래 사회와 교회의 상황을 예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목회환경이 펼쳐진다는 가정 하에 여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간 정보와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방향을 찾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목회자들과 교회에 공유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 출판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주 목회자들만의 내용으로는 시야도 좁고 특수 환경 가운데 있기에, 한국 목회자들과도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한국뿐 아니라 북미 지역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들도 참여하면 다각도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김병삼 목사: 코로나 시대, 소그룹이나 선교 등 각 분야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인사이트라고 하면 솔루션을 생각하는데, 이 책이 솔루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뉴 노멀, 새로운 시대에 고민할 수 있게 하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논의의 장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해답인 것처럼 말했지만, 단편적 지식으로만 떠돌아 구제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책이 그런 공식적 논의의 장으로 인도하는 역할, 해답이 아닌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훈 교수는 “온라인 사역은 사역의 상상력을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한다”고 전했다.

-온라인을 넘어 ‘올라인’ 을 추구하시는데, 온라인은 사실 설교자나 청중 모두 집중도 어렵고, 잘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개인화 또는 게토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상황이 좋거나 정답이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어, 단순히 밸런스를 맞춘다는 면에서의 균형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시대가 끝나면, 아마 대부분 오프라인 쪽에 굉장히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실망을 느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만큼 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온라인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올라인-오프라인’ 밸런스는 균형 추를 맞춘다는 의미보다, ‘지금 이 사역에서 필요한 것이 온라인인가, 오프라인인가’를 포착하는 능력으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어느 시점이 되면 오프라인 모임도 100% 가능해질텐데, ‘흩어지는 교회’ 에서 다시 ‘모이는 교회’ 가 될 수 있을까요.

이상훈 교수: 그런 날도 올 것입니다. 모임을 통해 얻는 영적 감동이나 공동체 내에서 실제적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부분들의 부족이 온라인의 한계점입니다.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오프라인 모임을 목말라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이 100%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사이버 문화에 훨씬 익숙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앙 여정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오프라인에 대한 욕망이 강하겠지만,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에 당위성만 갖고 예전처럼 예배드리자고 해도 소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온라인은 선교의 가장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출석하지 않는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국 새들백교회는 15년 전부터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을 온

라인에서도 구축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성도가 될 수 있으며, 거기서 양육과 소그룹 활동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온라인 성도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합니다. 온라인 성도들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 있지만, 각자 근처에서 모여 오프라인으로 공동체성을 느끼게 합니다. 온라인 사역을 하나의 ‘특수 사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품고 가야 하고, 선교적 사역의 일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라인에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오프라인 교회로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에 있어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것 말고 해답이 없습니다. 평생 꼬박꼬박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당연히 다시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옵션처럼 느끼거나 온라인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라면 어떻게요? 오프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과 체험이 없다면, 그 분들이 여러 가지를 희생해 가면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계속>

이대웅 기자

‘갠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위하여
갠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목사(예수전도대), 주선목사(성신대 영명교수), 이종목사(예수전도대), 송정목사(복음번안), 김종대목사(주님미주교회), 신정민목사(동명대), 유근기목사(영광교회), 김민석목사(KCC공명교회)
* 열의 책에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 / 권당 + \$5 우송료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집자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갠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원/영)과 속편 빛은 그를 위하여(원/영)는 북한 건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아성도들의 선교증언으로 지아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과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양: GBMW 모든 기부금은 새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새금성수증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세계선교협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일!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www.marhlaw.com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까.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내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뺄 수 없는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언제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전문이 없는 것 같 알고 있습니다.

辯護
변호

實力
실력

精誠
정성

責任
책임

信賴
신뢰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ier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16**

“새 학기(9월)를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며...”

지난 6월 한 달간 남부 치아파스 선교지를 다녀온 후에 신학교 교정은 강렬한 폭염과 함께 적막하다. 선교사님 가정은 방학기 휴가 중이다.

9월 6일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시설 보수와 페인트칠 등을 하면서 지낸다. 기숙사의 학생 시설을 살피던 중 선교사들이 업무를 못 내고 있었던 일이 학생들 침대 매트리스를 바꾸는 것이었다. 낡아서 학생들 사용하기 어렵겠다고 판단 한 것이 30개가량 되었다.

스텝들과 침대 총판장을 찾아갔다. 학생들에게 적당하다 생각되는 매트리스 싱글 가격이 3200패소 정도였다. 30개를 구입한다면 96000 패소의 예산이다. 아! 다른 시설 보수 재정도 어려운데 침대 구입 재정은 없었다.

아내와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자 했다. 아내는 뜨거운 강당으로 들어가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할 날 오후 무렵 지난 6월 결혼한 딸 내외가 전화했다. 기도하면서 자기 부부가 매월 300불씩 선교헌금을 보내겠다는 통고였다. 곧바로 우리는 이 현금으로 침대구입 특별재정의 씨드 현금으로 하나님께 올렸다. 30개 중에 2개가 우선 된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전혀 연락이 없었던 엘에이 근처의 2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서 연달아 교회 주일예배 설교 요청이 왔다. 방학 기간 중이라 주일 시간이 가능하여 지난주일 그 중 한 교회를 찾았다.

놀라운 간증이다. 교인 중 한 분이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지난 3월 코로나 전염으로 소천하셨다. 그분은 평소 비즈니스를 하면서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에게서 신세를 많이 졌다. 늘 생각하던 중 임종 전에 자기 신세 진 히스패닉계 학생들을 찾아 도움을 주었으면 하여 목적 현금을 교회에 드렸으면 하는 유언을 가족에게 남겼다. 그렇게 장례식 후 가족이 현금하였다. 교회는 그 현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기도하던 끝에 우리 신학교를 알게 되어 필자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분이 현금 금액의 일부를 우리 신학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교로 선교헌금 하였다. 나는 돌아오는 길에 자상하신 하나님을 목상했다. 감사했다.

또 필자를 초청한 다른 한 교회의 담임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다. 평소 필자의 세계선교 비전을 늘 바라보면서 응원하였다 했다. 부임해 간 지 5년 되었다. 교회는 30주년을 넘었다 했다. 그러나 아직 선교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필자를 청한 이유는 교회에 선교 비전을 심으면 한다 했다. 팬더믹이라 못한다가 아니라 팬더믹 중에도 최전방 선교를 수행하는 목사님과 선교단체의 미전도종족 선교 비전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선교 후원 예산을 세우기로 하여 필자를 청한 것이다. 필자는 청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일 설교를 정성껏 준비하겠다 하며 날짜를 정했다.

8월 중에는 세리토스 예수사랑교회 단기 탐이 담임목사님 인도하에 우리 신학교 음향시설을 새로 교체하고자 오게 된다. 그 담임목사님이 전화를 주었다. 가까운 동료 목사와 우리 신학교 음향설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동료 목사분이 감동하여 신학교 음향 마이크 시스템을 자신이 현금하고 싶다 하여 예상보다 더 좋은 마이크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즐거운 연락을 주었다.

하나하나가 선교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임을 확신한다. 그런 중에 이번 주 새 학기에 등록하려고 신입생 15명 정원이 다 채워져 조기 등록이 다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폭염을 뚫고 이겨내며 멕시코 신학교는 새 학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⑳ “바울이 만난 두 번째 총독 베스도”

바울을 2년간 구금하고 있었던 벨릭스는 계속된 유대인의 폭동과 소란으로 해임되었습니다. 특히 가이사라에서 발발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벨릭스를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해고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벨릭스(Felix)를 해고하고 그 후임으로 포르키우스 페스투스(Porcius Festus, 성경명 베스도)를 유대지역 총독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신약배경사를 가르쳤던 마이클 목사(박사)는 유대지역 총독은 로마 정부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말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황제 네로는 스승이었던 철학자 세네카가 추천으로 베스도를 유대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세네카와 뜻을 같이했던 부로(Burrus) 총독도 베스도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베스도를 추천한 이유는 베스도의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태도를 높이 샀다고 역사 자료는 전합니다.

갑자기 면직된 벨릭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된 베스도는 벨릭스가 씨름했던 문제들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지역 총독이 되기 전에 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의 치적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받습니다. 베스도는 2년 정도의 임기를 마칠 무렵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네로는 다른 총독을 보냈는데 그가 루시우스 알비누스(Luceius Albinus)입니다.

네로의 명령에 의해 총독으로 부임한 알비누스 총독도 전임자와 유사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임자인 베스도에 관해서는 침묵하지만 벨릭스 총독의 악행과 부정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통상 바로 후임자가 전임자의 비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비누스 총독이 베스도를 비난하지 않고 벨릭스를 비난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정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에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 또 유대 국민들도 로마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네로는 이런 유대 지방을 잠잠하게 다스려줄 온건한 총독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베스도가 추천되어 유대 총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네로 황제와 추천자들의 기대대로 비교적 조용하게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베스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베스도에 관한 자료는 성경과 요세푸스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Porcus Festus)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삼두 정치 시절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던 포르키우스 가문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이름 베스도(Festus)는 축제(Festival) 혹은 기쁨(Joy)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스도의 인품과 업무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요세푸스의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지역 총독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유대 아그립바 왕이 예루살렘 궁전에 큰 식당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귀빈들과 파티를 즐기기 위해 만든 식당은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예루살렘 시내 전체와 성전 안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궁궐에 성전 안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식당이 만들어 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유대인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이뤄지는 거룩한 일들을 왕과 왕의 손님들이 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시야를 가리기위한 벽 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은 왕궁의 조망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안토니아 부대

(Fort Antonia)의 망루의 시야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담에 대해 베스도 총독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그 담을 허물 것을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이 베스도의 명령에 반발합니다. 이에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네로 황제에게 이 문제를 직접 제소하게 합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감수하고 유대인들이 로마황실에 제소하게 했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평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네로는 유대인의 손을 들어 줍니다. 당시 네로의 아내가 둘째 부인 포피아 사비나(Poppea Sabina)였습니다. 포피아는 나름대로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녀가 유대교와 성전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을 도왔다고 요세푸스는 전합니다. 베스도는 당시 네로가 친 유대교적 성향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 벽 사건을 네로에게 직접 제소하도록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스도 총독이 평화 지향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이 의견에 가이사라를 방문했던 유대의 왕 아그립바 2세와 그의 아내이자 여동생인 베니케(Bernice)도 동의합니다. 아그립바 왕은 베스도에게 “만약 바울이 로마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다(행26:32)”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요청대로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로마로 보냅니다.

베스도의 전임자 벨릭스(Felix)의 아내는 아그립바 2세의 동생 드루실라였습니다. 드루실라가 유대 사회의 상황을 잘 알았고 바울과 산헤드린의 갈등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도 바울의 무죄를 알았지만 (뇌물을 받고 싶은) 개인적 욕심과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바울을 2년 동안 감금했습니다. 반면 베스도는 바울의 무죄를 알고, 바울의 요청대로 로마로 보냅니다. 베스도 까닭에 바울의 로마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오늘날 교회 예배...십자가의 ‘속죄’와 ‘보혈’이 빠졌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8)

본지는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의 소논문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을 연재합니다. 오늘의 예배 음악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교회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II. 초기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2.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1)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찬 예배 공동체

초기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 중심이 된 말씀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례전이 중심이 되고,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었던 예배공동체였음이 확실하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 (사도행전 2:46-47) 이외에 다른 문서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 1933-2007) 교수는 “이 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너무나 큰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이었기에 그들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배에 관해 기록하는 것을 피했다.”고 이야기 한다.

한편 듀크대학의 예배 역사학자 레스터 루스(Lester Roth) 교수는 월드미션대학교 ‘현대 예배와 찬양’ 특강에서 초기 2-5 세기 기독교 교인들의 예배를 연구하며 그들이 예배에서 세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정의한다.

그들은 경배를 우선으로 하였다.(Priority of Praise)

두 번째, 그들은 본질적인 것들에 반응하여 그 흐름을 예배순서로 삼았다.(Order of Worship as Flow of Essential Actions)

그리고 그들은 역동적으로 참여했다.(Dynamic Participation of the People)

이 같은 요소들은 초기기독교 교인들이 얼마나 예배를 깊이 경외하고 흠모했었는지 그 한 단면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기독교가 250여 년(64-313) 가까이 로마의 메서운 칼바람과 같은 핍박과 시련



Catacomb of Priscilla ©Max Rossi/Reuters/Corbis

속에서도 말살되지 않고 견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준다.

1세대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체험 신앙은 2세대, 3세대로 전환되기까지 그 뜨거운 열정으로 연결되었다.

그들은 구약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성전과 회당의 예배 예전(Liturgy)의 전통을 잘 전수하여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모든 예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삶에서의 예배를 실천했다.

그들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부활 신앙에 기초를 두었고, 예수께서 승천하심, 그리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행1:11)을 기억하고, 그것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예배자들이 된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실로 대단하다.

오늘의 사회에서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밀려오는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들은 교회를 차갑게 하고 멀게 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이다.

한신대학교 오승성 교수는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묘사한다. 오 교수는 “한국 교회는 지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외적으로는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배타주의와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는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해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제약적이고 비윤리적인 목회, 불투명한 회계, 교회 세습 등과 더불어 교회의 심각한 노령화로 인해 교회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분명 한국교회는 그 누가 보아도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두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예배자들의 예배관이다.

오늘날 예배는 초기 기독교에서 가졌던 복음이 중심이 된 예배에서 많이 벗어나려 한다. 기복신앙에 기인된 개인주의, 그것으로 인해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는 사상이 팽배하다. 또 삶의 윤리가 강조된 가르침이 주된 이유가 되어 정작 매 순간 기억 되어야 할 복음적 예배의 진리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시대 교회 예배 공동체를 바라보며 필자는 에이든 토저(Aiden Wilson Tozer 1897-1963) 목사가 쓴 예배론의 한 부분을 서술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런 예배를 가리켜 나는 ‘가인의 예배’라고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고 정죄하셨기 때문이다. 가인의 예배는 속죄가 빠진 예배였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정성껏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속죄의 예배를 드렸다. (히9:22) 이 전통을 이어받아 초대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으로 인한 속죄가 있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예배공동체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사건을 예배를 통해 기념하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그냥 순수하게 믿고 그것을 고대하고 찬양하며 서로 나누며 통용했던 사랑의 공동체였다. (행2:43-47)

오늘날의 교회는 비록 초대교회와는 다른 시대와 문화를 갖고 있지만, 변질되지 않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속죄의 보혈을 가르치는 참된 교회인 것이다.

토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서술한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의 속죄의 보혈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단 한 시간도 머물고 싶지 않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가인의 예배’가 드러질 수밖에 없다.”

십자가의 보혈이 중심이 된 복음적인 예배를 가르치는 교회로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깊이 점검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주권의 문제와 관점의 문제이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에 있어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이 코비드 펜데믹이 교회에 주고 간,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말할 수 없는 불편함들을 여기

저기서 아직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의 예배에 관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메가폰 소리로 들어야 한다.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쫓는다.” 라고 정의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찬 예배 공동체 인 초기 기독교 교회 예배

진실의 잣대를 대고 오늘의 예배를 돌아보며 더이상 만사가 잘 돌아간다는 환상을 깨뜨리고 메가폰 소리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머리와 가슴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드리고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닌 복음을 향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이 진실의 깃발을 쫓아야 한다.(계속)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AB),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s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남침례교 윤리종교자유위, 대법원에 '로 대 웨이드' 판결 취소 촉구

미국 남침례교회 산하 단체 및 종교 단체들이 미 대법원에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뱀티스트프레스에 따르면, 27일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가 미국 전역에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낙태 허용시기를 임신 28주에서 23주로 앞당긴 1992년 '가죽계획연맹 대 케이시' 판결의 번복을 요구하는 법정 조언자(Amici Curiae)의 의견서에 서명했다.

이 의견서는 미국 가톨릭 주교협회(USCCB)가 임신 15주 이후 또는 임신 후기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법을 지지하는 의견서로, 윤리종교자유위원회 외에도 미국 복음주의협회, 루터교-미주리 시노드, 빌복시와 잭슨 가톨릭 교구, 미국 정교회 주교협의회가 서명에 참여했다.

앞서 미시시피 주의 낙태 제한 법률은 1심과 2심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연방대법원에 올

라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의견서는 대법원의 1973년과 92년의 두 판례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이러한 판결은 각 주들이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전에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기에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견서는 "헌법이 태아가 생존할 수 있기 전이나, 다른 임신 단계에서 낙태할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낙태에 대한 단언적인 권리는 헌법이나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이 미시시피 주의 임신 후기 낙태 금지법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다.

첼시 소블릭 ERLC 공공정책국장 대행은 뱀티스트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오랫동안 로(대 웨이드)와 케이시(대 가죽계획연맹)의 판결로 인해, 우리 국가는 발언권이 없는 이들의 권경을 외면하도록 만들었다"며 "법원에 이 두 사건을 뒤집어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 것을 요청한다"



©Unsplash/HuChen

고 말했다. 소블릭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뉘스(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은 법원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브랜트 레더우드 ERLC 대외담당 부사장은 최근 성명에서 "정부에는 많은 책임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 그 책임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레더우드는 또 "기독교인들은 미

국이 가장 취약한 이웃의 존엄성을 인정해 줄 것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준다"며 "그렇기 되기 전까지는 우리 국가는 모든 개인의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를 보호하는 나라라는 숭고한 목표를 완전히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3월 필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지사는 낙태 금지를 '임신 20주'에서 '15주 이후'로 변경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자 미시시피 주의 유일한 낙태 시술 업체인 잭슨여성보건기구는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년 여름 휴정 기간 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생명옹호 단체인 '살롯 로 지어 연구소'가 27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 50개국 중 47개국이 선택적 낙태를 허용하지 않거나 임신 15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자선 기부' 미국인 절반 이하, 20년 만에 최저 기록



무명의 기부자가 자선함에 넣은 530달러

미국 가구 전체의 절반만이 자선 단체에 기부했으며,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인디애나 대학교 산하 릴리 패밀리 자선학교(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는 최근 '기부환경: 대유행 이전의 자선 기부 동향 파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미국인 7천명에서 9천명으로 구성된 패널(PPS)을 중심으로 2년마다 미국인의 자선 기부 패턴을 추적했다.

자선 단체에 기부한 미국 가구의 비율은 2002년 68%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2년 뒤 67%로 떨어졌다. 2006년과 2008년에는 65%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계속 감소했고, 2018년 사상 최저인 49.6%를 기록했다.

동시에 미국 가정이 자선단체에 기부한 평균 금액도 감소했다.

2018년 미국 가정은 평균 1280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는데, 이는 자선 기부 습관에 대한 설문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금액이다.

2000년 미국 가정들은 평균 1790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2004년 1866불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기부액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4년 1480불까지 떨어졌고, 2016년 소폭 상승했으나 2018년 다시 하락했다.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종교에 단체에 대한 기부는 세속 단체에 대한 기부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는 미국 가정의 46.5%가 종교 자선단체에 기부했으나 2018년 29%로 하락했다. 종교 활동에 대한 기부 금액도 2000년 1107불에서 2018년 771불로 감소했다.

세속적인 자선 단체에 대한 기

부도 20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다. 2000년에는 미국 가정의 55.2%가 일반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

보고서는 "이 수치는 2008년까지 55%에서 56.8% 사이를 유지했고, 이후 세속(단체) 기부를 하는 가구의 비율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2018년 41.6%로 최저를 기록했다"고 했다.

세속 자선단체에 기부한 가구당 평균 금액도 2000년 684불에서 509불로 떨어졌다.

미국 자선단체 'Giving USA'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가 코로나 대유행을 겪던 시기에 미국인들은 사상 최대인 4710억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애나 대학 보고서는 "2008년 대공황(2007년 12월-2009년 6월)은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할지 여부와 기부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그러나 경기 침체에서 회복된 후에도 (감소)추세는 둔화되거나 역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기부 감소의 원인으로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언급했다.

2002년에는 30세 미만 미국인 4명 중 1명이 "자선단체를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2014년에는 19%만이 동의했다.

김유진 기자

코로나 감염 故 빌리 그레함 손자, 퇴원



빌리 그레함 목사의 딸인 앤 그레함 로츠 여사(우)와 아들 조나단 로츠. © 앤 그레함 로츠 인스타그램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했던 고 빌리 그레함 목사의 손자 조나단 로츠가 중환자실에서 퇴원해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딸이자 조나단 로츠의 어머니인 앤 그레함 로츠는 최근 아들의 회복을 위해 SNS를 통해 기도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8일 로츠 여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며 "조나단이 방금 중환자실에서 퇴원해 재활을 시작한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이어 "어두운 의심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분을 신뢰하고, 힘이 약해질 때 그분을 신뢰하라. 단순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강한 일이다. 그분을 믿으라.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다. 그분의 뜻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라"라고 글을 남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부작용 없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달라"고 당부하며 시편 18편1-3절(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니)를 인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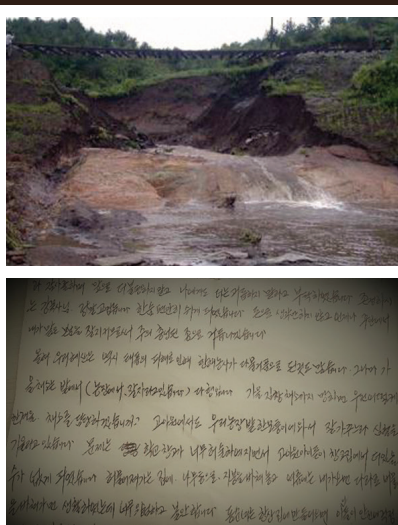
앞서 로츠 여사는 25일 SNS를 통해 아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알렸다. 그녀는 "아들은 육체적으로는 지쳤지만 영적으로는 넘치고 있다"라며 그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직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3남매 중 한 명인 조나단 로츠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일했다고 윈스턴-세일럼 저널이 지난 2018년 보도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운영하면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계속 기리고 있다고 한다. 조나단 로츠 미니스트리(Jonathan Lotz Ministries)를 통해 그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 _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북녘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움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백신 접종했어야 했다” 중환자실 간 미국 목사, 후회 토로



대니 리브스 목사 ©YouTube/FOX 4 Dallas-Fort Worth

이달 초 코로나19에 감염돼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던 미국 목회자가 자신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2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베일러 메디컬 센터에서 투병 중인 대니 리브스 목사(코르사카나 제일침례교회 담임)는 ‘폭스4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교회를 얻었고 내가 틀렸다고 말할 만큼 충분히 고 겸손한 상태. 내 생존과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리브스는 몸살과 다른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한 며칠 후,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였고,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폭스4뉴스에 따르면 그는 양성반응을 보인 지 일주일 만에 호흡곤란이 심해졌고, 의료 센터에 입원했음에도 혈중 산소 농도는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다.

리브스는 “의사가 들어와서 ‘중환자실로 갈 것’이라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 인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 순간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울었고, 감정적인 순간들을 보냈으며, 여기서 후회했다”며 “내가 무신경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마터면 죽을 뻔 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중환자실에서 이들을 보낸 리브

스는 폐 이식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사들의 말을 들었고, 지금은 약물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에 있다.

리브스는 “나는 그들(의사)에게 왜 내 인가?라고 물었고 그들은 ‘대니, 이걸 단지 복권 당첨의 확률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만일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백신을 맞는 것을 정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백신을 맞으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백신이 바이러스 감염과 전파를 막고, 바이러스 감염 시에도 중증 질환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주변의 취약군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은 백신 완전 접종자들에서도 델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나오자, 보건당국은 27일 백신 접종자에게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뉴욕 벨뷰 병원 센터의 전염병 전문의인 셀린 구더(Celine Gounder) 박사는 뉴욕타임즈(NYT)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 재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말했다.

김유진 기자

백신 접종 마친 맥스 루케이도 목사, 코로나19 감염



맥스 루케이도 ©페이스북 캡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국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Max Lucado) 목사가 최근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루케이도 목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기재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고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오크 힐스 교회에서 설교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그는 후속 트윗에서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서 “좋은 의료 서비스와 아내, 그리고 호텔 대신 집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참하긴 하지만 예방접종이 없었다면 불행은 더 컸을 것이다. 그래

서 축복을 세어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며 기도를 요청했다.

한편, 최근 이스라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의료 자원 그룹인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는 “이스라엘 보건부가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이 심각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여전히 매우 효과적이지만, 질병의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효과를 잃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예비 데이터를 발표했다”라고 보고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LA 지역

LA백송교회
백합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2인2세를 섬기며, 이만기장을 치료하며, 신교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 386-2233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나성제일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커뮤니티를 섬기는 예수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삶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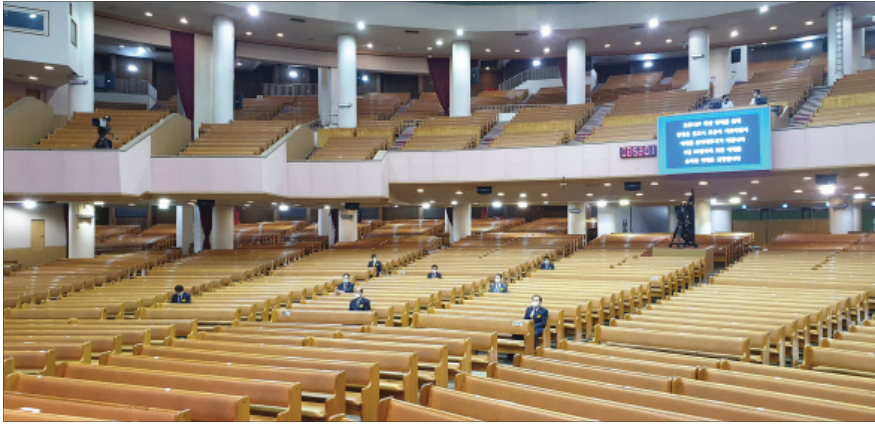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이영훈 · 오정현 등 목회자 30여명, “예배는 생명” 탄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과거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 지역 교회들이 29일, 대면예배 시 최대 19명까지만 허용하는 현행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주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이 탄원서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 원로 김삼환 목사, 오륜교회 담임 김은호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대구서문교회 이상민 목사 등 3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종교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리스도인에게 예

배는 생명이고 호흡”이라며 “이를 막는다면 신앙인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를 지키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형평성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는 “가처분 신청의 짧은 시간과 휴가기간이 겹쳐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교회도 참여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추가적으로 본안 재판까지 탄원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예배 인원 최대 19명 허용? 사실상 비대면 강요”



예자연 실행위원장인 박경배 목사가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자연

수도권·대전 교회들 제기... 이영훈·오정현 목사 등 탄원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 지역 교회들이 29일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인천·대전지방법원에, 대면예배 시 최대 19명까지만 허용하는 현행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29일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여전히 (대면예배 참여 인원을 최대) 19명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만 석의 예배당과 1백 석의 예배당에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예자연은 “방역당국은 급변 2월 1일 공식적으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는 (거의) 없었다’라고 인정했고, 혹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각 교회는 헌법상에 명시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감당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용이 가능하게 하면서도 유독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못해 모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교회에 대해 다

른 시설과 평등한 방역지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영안교회(담임 양병희 목사), 주안중앙장로교회(담임 박운순 목사), 송촌장로교회(담임 박경배 목사), 디딤돌교회(담임 박문수 목사), 대전제일교회(담임 김철민 목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예자연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 원로 김삼환 목사, 오륜교회 담임 김은호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대구서문교회 이상민 목사 등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종교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명이고 호흡”이라며 “이를 막는다면 신앙인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를 지키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형평성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예자연은 “가처분 신청의 짧은 시간과 휴가기간이 겹쳐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교회도 참여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추가적으로 본안 재판까지 탄원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M 청년예배 오후 2:0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방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org

김우준 담임목사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6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민승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韓語)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형찬양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 주시게 하소서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이 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충만하게 세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김성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왕상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 743-0141

최순길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원생부)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김일권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안성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주) / 9:0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림학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샘물교회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 749-7770 www.saemmoool.church

정기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얼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 646-9259

신원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 수시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1 여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중세교회사	Daniel Min
Wed	8:30 PM - 10:30 PM	시편강해2	Timothy Song
Thu	7:30 PM - 9:30 PM	고린도전후서	James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2	Elijah Kim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착각하지 맙시다!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은 예수를 찾기 위해 다시 성전으로 되돌아가서 사흘쯤이 되어서야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말씀하셨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스테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겐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 사건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때로는 이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신앙의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앙의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떠나 사실은 자기만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착각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신앙의 높은 곳으로 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심입니까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열심입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제주도에 가면 관광코스 가운데 ‘도깨비 도로’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볼 때, 오르막 길인데, 오르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기어를 ‘중립(N)’에 놓으면, 차가 뒤로 굴러가야 하는데, 오르막 방향인 앞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이 현상이 마치 도깨비들이 요술을 부리는 길 같다고 하여 ‘도깨비 도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길의 특이점이 발견된 것은, 1981년인 데요. 한 신혼부부를 태우고 가던 택시 기사가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내렸답니다. 당시, 제동장치를 걸지 않고 내렸는데, 차가 천천히 눈으로 보기는 오르막 방향인 언덕 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실, 이 도로는 실제로는 오르막길로 보이는 쪽이 경사 3도 정도의 내리막길인데 주변 지형 때문에 오르막 길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절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하루쯤 지나서야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들

이기는 자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결승점이 가까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사악하고 교활한 작전으로 인정 사정 없이 끝까지 집요하게 공격 합니다. 그렇기에 어제 큰 부흥과 승리를 체험했던 교회인데도 오늘은 분열과 다툼에 빠져 안타까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신앙의 어리석음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요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를 향해 쓴 요한 서신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요1서3:1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 7번 이상이나 반복하여 “이기는 자”를 말씀합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들처럼 천국은 치열하게 싸워 이긴 영적 전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게으른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지런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골인하는 곳입니다.

주보에 실는 피드백, 감사노트, 필사에 대한 간증과 짧은 글, 그리고 금요일에 나누는 간증도 “이기는 자”가 되는 훈련입니다. 이런 일을 해보신 분은 다 느끼지만 처음에는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의 매일 매일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도쿄 올림픽이 시작하기까지 미국의 간판 스타는 2016 리우 올림픽 체조 여자 4관왕인 미국의 시몬 바일스(24)였습니다. 그런데 체조여왕이라는 그녀가 단체전에 이어 개인 종합 경기까지 경기직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바일스는 인터뷰에서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심리적 중압감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쉽지 않은 하루였다. 가끔은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느낌이 든다. 압박감이 내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힘들 때도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정상의 선수이지만 너무나 힘든 싸움하기에 정신적으로 지쳐 나머지 경기를 소화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최고의 신앙인 줄 알았는데, 오늘 무기력하게 기권하여 승리를 놓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스포츠와 전쟁은 또 다릅니다. 스포츠는 쳐도 다음 기회가 있지만, 전쟁은 지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옆과 뒤에 있는 전우들까지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 박광철 목사의 영성 계발

영적 리더십은 세상적인 리더십과 무엇이 다를까?



솔트하우스선교회 대표
박광철 목사

2) 영적 리더십의 특징

영적 리더십은 세상적인 리더십과 많은 측면에서 다르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 몇 가지의 특징을 보자.

(1) 하나님의 안건(agenda)

내 아이디어와 내 계획을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중심 주제로 삼는 것이 영적 리더의 일이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야심과 꿈을 하나님의 것으로 혼돈하고 수고하다가 주

님의 칭찬을 듣지 못하는 헛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더 넓은 땅을 사서 부대 시설을 갖추는 것이 교회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육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지 재고해야 한다. 또한 교인의 숫자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많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누구의 일인가? 그런 것이 모두 하나님의 안건인가, 아니면 목회자와 리더들의 숨겨진 야심은 아닌가?

영적 리더는 개인과 우리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전진해야 한다. 그것은 대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성령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이다. 어느 목사는 자신의 은사의 한계를 인식하여 소수의 사람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우고 또 그들이 사회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사역하고 있다.

그는 인기가 대항화에는 상관 없이 지금까지도 열매가 풍성한 사역을 행복하게 감당하고 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사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은사에 따라 허락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이 영적 리더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안건을 수행하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건전한 영성

영적 리더십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모든 종교가 영성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들은 우상이나 허상을 따르는 것이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건전한 영성은 어떤 신비체험이나 다양한 신학보다 성경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

하나국의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이나 이단 종파들도 영성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그것은 대체로 성경의 가르침을 떠난 것이므로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들은 교주나 단체의 대표의 비성경적인 야심이나 잘못된 확신에 근거하지만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도 강력한 리더가 분명하다. 그렇지만 영혼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건전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다.

(3) 하나님께 대한 전적 헌신

세상의 리더는 정부나 기관에 헌신하여 그들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매진한다. 그러나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으로서 주님이 그의 상관이고 주인이다. 영적 리더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산 제물로서 섬기며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

는 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르며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지 않는 것이면 어떤 이익이 와도 거절한다.

(4) 하나님께 대한 책임

현실적으로는 단체나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보고한다. 어느 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계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롬 14:12). 이것은 현재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초월한 입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판단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세상의 것들과 다르며 소속 단체와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책임을 지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5) 성경에 근거한 사역

영적인 리더의 매뉴얼은 성경으로서 사역과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전하고 복음적인 신학과 교육이 필수적이며 성경을 떠난 이론과 사상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적인 신비 체험이나 비 성경적인 주장이 결코 사역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6) 높은 도덕성

영적 리더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된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성과가 좋아도 비윤리적인 것을 배격한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리더의 인격이며 성품이다.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총동적인 성품은 좋은 리더가 되기 어렵다. 영적 리더는 깊은 영성과 성적인 순결성, 정직성이 필수적이다. 인간관계와 돈 관리와 자신 관리에 힘쓰고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특히 헌금과 모금에 있어서 지혜롭고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고, 가정적으로도 안정되고 자녀 양육에도 본이 되어야 한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좋은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돕는 기관에 속한 사역자가 너무 부유하게 사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흠리스들을 돕는 사람이 웅장하고 거대한 주택에 살며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값비싼 자동차를 타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7) 하나님의 심판 의식

우리의 삶과 사역의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현재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인식해야 한다. 정당한 상급과 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티셔츠
 굿모닝
 머그컵
 메모지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사망의 올무가 되는 욕심

야고보서 1:1-11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3.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 하노라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중략)...생각하지 말라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9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 헤아 돌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는 예수님이 동정탄생하신 이후에 마리아가 약혼했던 요셉과 정식 결혼을 하고 낳은 네 아들 중 맏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3:55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며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머니가 같은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빈정 대기도하고 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천지가 진동하고 햇빛이 흐리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송장들이 살아서 일어나는 모습을 본 후 그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다른 동생들도 포함한 120명이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기도에 전혀 힘쓰지 않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에 붙들리고 이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생각이 건전하고 말이 진실되며 행동이 성실하여 충성스러움으로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 당회장으로 사역한 일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가장 낮은 종의 위치로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 아주 겸손한 신앙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하게 하심을 따라 거듭난 심령들,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소망을 목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절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회개를 했고 죄를 용서받아서 성령을 모셨다 할지라도 죄악의 근성이 아직은 잠재되어 있으며 영

영히 없어진 것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미끼로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범죄하게 해서 다시 지옥으로 가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부적 압력 박해입니다. 내적으로 잠재된 욕망을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하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 영어로는 템테이션(유혹 Temptation) 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시험은 외압에 의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마귀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신앙심을 빼앗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하고 여러 모양으로 핍박하고 행패와 억압,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순풍에 돛단듯 아무 시련도 없이 천국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환란과 시련, 행패와 고통, 핍박, 여러 가지 억울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이 유리방황하게 되는 불행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야고보서 1:3-4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회개하고 진리로 거듭나서 성령을 파송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사는 목적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당하는 고통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하여금 이 세상 허욕을 완전히 포기하고 초월해서 하늘의 영원하고 신성한 내세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모습 보시기를 원하셔서 세상 줄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갖 유혹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잦은 실족의 미끼는 돈, 명예, 권력, 성적유혹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면 왜 시험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마귀로부터 온갖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내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마귀가 미워하고 질투해서 나를 괴롭히는구나’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인 것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18-19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소속관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우는 사람과 같이 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행패와 환란과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을 믿음으로 타개(打開)하고 극복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점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많이 치루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합격한 사람은 다른 시험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믿음이 얽치락 뒤치락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마귀가 만들어가는 상황에 집착하게 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을 서둘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신앙인이려면 마귀가 아무리 자신을 괴롭게 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자신이 마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기대와 선망의 자녀로 돌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기질투해서 못살게 괴롭히고 시험한다고 깨닫는 영감적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약1:5).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의 ‘낮은 형제’란 이 세상 조건으로 가진 것이 없고 명분도 없고 지위도, 지식, 기술도 돈도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세상적으로는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 사람의 세상 조건은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조건은 부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아 하늘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의 신앙인격이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베풀고 구제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지혜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천국에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풀에 꽃과 같이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욕심이 원하는 본능적 욕구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영생복락의 신령한 소망을 일깨워주는 영감적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9-12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사라질 것들에 중노릇하다가 지옥 가서 영원한 유향불에 시달리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眞髓)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17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컬러
\$40 up \$2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40^{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u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예배란 무엇인가?

월드미션대학교 가진수 교수 칼럼



예배 현장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교회를 비롯한 예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은혜를 경험한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성령님을 통한 능력이 소생한다.

예배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주일에 단 한번 1시간 정도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이에 더해 젊은 청년과 학생, 주일학교 어린이를 포함한 다음세대의 예배 출석률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예배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인 시간이 아닌 것이다.

나는 한국 교회의 예배가 '예배'의 본래 모습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배를 갱신하고 변화시킬 방법들을 찾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예배의 강화를 제고해야 한다. 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배 회복과 갱신에 대한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우선, 예배의 균형을 찾는 일이다.

예배의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설교 중심의 예배에서 성경적인 예배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교 중심의 예배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예배는 설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라는 말은 더욱이 성경적이 아니다. 예배에서의 설교 중심주의 지향은 초대 교회 예배의 2중 구조인 설교와 성찬과 초기 기독교 교회의 4중 구조인 모임, 말씀, 성찬, 파송, 즉 예배의 중요한 다른 요소들을 급격히 약화시켜버렸다. 초대 교회 예배의 역동성과 기쁨, 소망 등이 예배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초대 교회의 예배는 성찬의 예배 예식과 더불어 역동성 있는 '축제'가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은 예식만 남아있고, 감사와 축제의 기쁨은 사라져 성찬식이 의례적인 행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출애굽기 24:1-8에는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조가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하며 언약을 맺는 장면은 성경 최초의 예배 모티브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모습은 몇 가지 구조와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은 만남과 대화, 말씀과 파송이다.

이사야 6장을 비롯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패턴은 네 가지 구조의 형식이 담

겨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는 감사로 응답한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이 네 가지 예배의 요소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말씀 예전에만 치우치는 대다수의 현재 우리의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예배의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못하고 균형 잡히지 못한 불완전한 예배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성장하고 있는 예배들을 보면 말씀

대한 분명한 인식이 중요하다. A. W. 토저(Aiden Wilson Tozer)는 우리의 존재 가치와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계속 역설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예배를 위해 최초의 시작이 있었고 또한 예배를 위해 '중생'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는 교회의 이차적 목적이 아니며 교회의 액

등에는 개인적인 고백과 간증 등의 공동체적 교제의 찬양인 수평적(Horizontal) 찬양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성경적이고 기초적인 찬양의 개념조차 미약하다. 이 같은 찬양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부족은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는 예배의 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말씀의 선포는 성경적인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하며, 점점 사라지고 약해져 가는 성찬의 회복은 시급하다. 성찬은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상징성이 강한 중요한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예배의 마침인 '파송'은 또 다른 '축복(Blessing)'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역동성의 찬양과 결단과 고백이 뒤따라야 한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다. 우리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에서의 승리를 위해 영적으로 담대히 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배에서의 말씀 위에 찬양과 성찬의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성경적인 예배의 회복이 예배 갱신의 중요한 시작점이다. 지금 겪고 있는 한국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본질 회복과 예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 모든 예배의 준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목숨 건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만남을 통해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와 담임목사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예배의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며, 깊은 은혜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예배의 무한 책임선언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예배는 교회 모든 사역의 출발점 성경적 예배의 명확한 이해 절실 예배의 균형을 찾는 일이 먼저다 부르심 응답함으로 은혜 경험

과 더불어 찬양과 성찬 등이 강화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음세대들의 참여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두 번째, 예배의 성경적인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는 예배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을 인정해야 한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말 성경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지 등 너무 많은 예배의 본질적인 질문들이 우리 앞에 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제대로 알고 목적이 분명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잘 모르고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배의 초점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예배에서 보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넘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나아가 왜 우리가 그 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으며 깊은 교제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원천인 예배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의 전주곡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도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이차적 목적이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차, 삼차 또는 사차 목적이다.”(A. W. 토저, 이것이 예배이다(Worship The Missing Jewel)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10), 55-56p.)

예배가 중요하다고 인식될수록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출발점인 예배에 대해 명확히 깨달을수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분명한 존재 가치를 알 수 있으며 이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의 요체가 된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요소들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찬양의 본질을 찾는 일도 마찬가지다. 최근 20여년 가까이 서구의 많은 교회들은 찬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예배 인도자와 사역자, 예배 팀들을 훈련해왔으며, 설교와 함께 유기적인 예배의 좋은 모습을 만들어나갔다. 그로 인해 예배는 더욱 풍부해지고 깊이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젊은 이들이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서 예배가 더욱 역동성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는 예배에 대한 성경적 본질 회복과 훈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의 대다수는 예배에서의 찬양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일 공예배(Corporate Worship)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수직적인(Vertical) 찬양이,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기도회

예배는 우리 인생의 부차적인 목적이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하셨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사 43:7)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까?’라는 질문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예배는 교회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며,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주일의 예식적인 관례로만 끝나서는 미래가 없다.

지금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와 다음세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상상해보라. 우리의 예배가 과연 그런가?

〈가진수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과 교수 프로필〉

미국 풀러신학대학원(Fuller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박사(DMin.)
미국 로버트 웨버 예배 대학원(The Robert E. Webber Institute for Worship Studies, IWS) 예배학박사(DWS)

현재, 미국 월드미션대학교(World Mission University) 예배학과 교수 겸 학과장

현재, 글로벌워십미니스트리(Global Worship Ministry) 설립자

현재, 워십리더코리아(Worship Leader Korea) 설립자

현재, 국민일보 등 예배 칼럼니스트

현재, 예배 찬양 인도자

『성경적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예배 찬양 인도』 (상,하권) 『예배 성경신,구약』 『예배, 패러다임 시프트』 등 다수 저술

『예배의 흐름』 『예배의 고대와 미래』 『예배란 무엇인가?』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등 번역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과 교수이며 예배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가진수 교수 ©가진수 교수 제공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좋은 생각**

감정 다스리기: 마음 속 느낌에 ‘포스트잇’ 을 붙여 보라



감정에 휘둘리는
당신을 위한 심리수업
김세정
메이트북스 | 248쪽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서야 나에게 다정해질 수 있었다!”
감정 때문에 힘든 이들을 위한 친절한 심리수업

“어느 정도 살았다고 생각한 나이에도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나를 알아가고 치유하는 여정, 함께할까요?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기에 힘든 이에게 가슴에 단비와도 같은 책!

진정한 행복은 환경 아닌 생각에서 찾아와 모두 어렵지만, 내면은 평강으로 가득차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 모두에게 넘치길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이 능력이 다. 이제는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1년 넘게 지속 된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마음의 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무엇보다 생각을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철학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가릿 대처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어떻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채울 것인가? <감정에 휘둘리는 당신을 위한 심리수업>은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기 이해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강점과 취약점이 있는지, 주로 어떤 감정에 흔들리는지 등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좋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 하나가 시각을 바꾸기도 한다.

23세 청년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다. 자신을 낳지 않으려고 했다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청년의 어머니는 몸이 매우 아팠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생각했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삶에 회의감을 느끼며 어머니를 탓하며 살았다.

주변에 말해봤지만, 누구에게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던 대학교 상담센터 상담사는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당신을 낳은 것 아닌가요? 자기 생명보다 더 큰 사랑으로 아기를 지킨 거잖아요.”

청년은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새로운 시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체감했다. 질문은 그의 생각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만든다.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하다.

‘좋은 질문’이란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이 아니다.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하다. 좋은 질문은 생각의 근력을 키울 수 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질문해 보자. 기쁨, 감사, 분노, 불안과 같이 정확한 감정을 확인해야 한다.

저자는 이것을 ‘떠오르는 감정에 이름 짓기’라고 말한다. 내면에 ‘감정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이다.

또 하나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의 괴로움을 피하려고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한다. 과거는 늘 후회만 남고 미래는 늘 불안하다. 과거와 미래를

바꾸는 방법은 현재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고통 속에 사는 엄마가 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자신은 아들 생각에 밥 한 끼 먹기도 힘든데 남편은 끼니마다 밥을 챙겨 먹고 있다. 그녀는 상담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았다.

“아들 먼저 보내놓고도 어떻게 남편은 밥이 남아가지요? 저는 맛있는 걸 보면 아들 생각이 나서 다 못 먹는데, 남편은 지금도 영양제를 알아서 챙겨 먹어요. 자기 건강만 신경 쓰는 남편한테 정이 떨어졌어요.”

남편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건강을 챙기냐”고 남편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나마저 아프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을 듣고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남편은 현재를 충실히 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다. 과거의 영광, 행복했던 시절의 드라마를 반복적으로 보는 이유는 피하고 싶은 현실이 있어서 그렇다.

<감정에 휘둘리는 당신을 위한 심리수업>은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면을 잘 다스려야 한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마귀는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귀는 우리의 악한 부분을 잘 안다. 우리는 생각으로 무너질 때가 많다. 고민과 염려는 다 생각에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난다.

좋은 것으로 생각을 채우는 것은 어렵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시편 29:11)”.

평강의 복은 마음의 복이다.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 내면의 생각에서 찾아온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다. 모두 어렵게 살아간다. 그렇더라도 내면은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한다.

환경이 힘들수록 좋은 것으로 내면을 채우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나’에 대한 분석, 바야흐로 지금은 DIY 자기 치유 시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다지 나쁘지 않은 삶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면?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면?
자기소개서의 단 한 줄도 쓰기 힘들다면?

‘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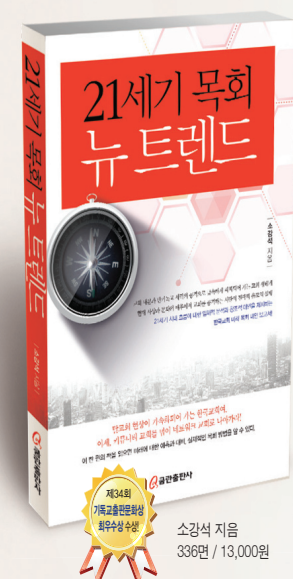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
묻고 또 물으며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위한
김세정 상담심리사의 친절한 대답!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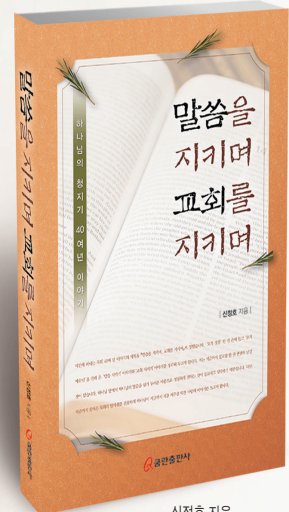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연립교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세대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가길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목교)출판 최우수상, 아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목교)로 회상, 찬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이사장, 대한민국 보존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간조의 목회정신과 아름다운 순증에서 나오는 그의 절실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남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년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노회장, 총회 군·농어촌 부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 기독교보는 설립인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대학교 객원교수, 연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2차) 8.15 광복 76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KONA 2021]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KONA2021]

"북한도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It Will Surely Come!" (Hab2:3)

북한선교의 다양한 전문가들(역사, 기도, 정치, 경제, 인권, 구제, 지하, 문화, 영화, 교육 등)의 지혜와 전세계의 부름받은 청년들과 연합으로 복음통일의 길로!



(축사)
로렌 커닝햄 총장
YWAM



(격려사)
주선애 교수
장신대명예

- **일 시** : 2021년 8월 9일(월) ~ 8월 14일(토)
- **장 소** : 하와이 KONA(선착순 마감)
- **문의** : T(425)775-7477, 기독교일보 T(213)739-0403
- **대상** : 한어/영어권 누구나(영어동시통역)
- **참가방법** : (현장대면 또는 ZOOM으로) 맨 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디아스포라)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복음통일)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회개_신사참배)
오창희 목사
흰돌교회



(통일경제)
신창민 교수
'통일은대박이다'



(중보기도연합)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북한농업)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역사교육)
황준석 목사
Friendship Council of U.S



(탈북구출/북한인권)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통일정치리더십)
김선진 교수
전)통일부홍보팀장



(북한지교회역사)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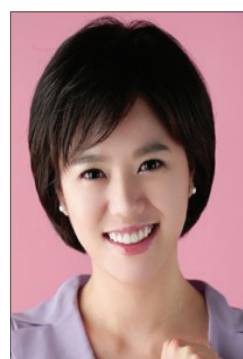
(북한인권영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씨'



(영어권통일교육)
채지미 목사
NT2 Mission



(간증)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복음통일네트워크)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GBMW)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주관: NT2 Mission 협찬:미주기독교일보 생중계: